5강. 栗谷 李 珥 (1536-1584)

-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의 하늘은 먹을 것이다 -

김 교 빈 (호서대학교)

1. 현실과 함께 한 삶

* 퇴계와 쌍벽 : 영남학파와 기호학파, 천 원 지폐와 5 천 원 지폐, 퇴계로와 율곡로
* 이황이 35년 연장
* 중종 31년 강원도 강릉 외가에서 출생 - 부 사헌부 감찰 이원수, 모 신사임당 오죽헌(烏竹軒) - 몽룡실(夢龍室) : 아명 현룡(見龍)
* 어려서 외가, 자라서 처가 - 파주 밤 골 마을 : 임진강 유역 유적 - 화석정
* 신사임당 : 예술적 재능
* 16세 때 모친 사망 - 19세 금강산 입산 : 처신문제 놓고 당쟁
* 20세 때 『논어』 읽다 귀향 - 오죽헌 머물면서 성인 목표 공부
* 23세 때 경북 예안 도산(陶山)으로 58세였던 이황 찾아감

* 두렷한 스승 없음 - 독창적
* 13살 소년 진사 - 9도장원공(九度壯元公)
* 과거답안 - 우주만물 변화 중 인간 역할 이기론 통해 서술 「역수책(易數策)」, 자연 변화를 기 변화로 설명하며 임금 수양 강조 「천도책(天道策)」: 23세 별시(別試) 답안 - 시험관들 여러 날 걸려 만든 문제 젊은 이이가 짧은 시간에 답 - 47세 때 사신 접빈객 율곡을 중국 사신들 선생님이라 부름.
* 29세 호조좌랑 - 대사간 9번 제수·대사헌·홍문관 대제학·호판·이판·병판 등 요직 청주목사 - 『서원향약(西原鄕約)』, 황해도 관찰사 - 『해주향약(海州鄕約)』
* 향약 : 주자학 도입시 여대균의 『여씨향약(呂氏鄕約)』이 『주자대전』에 실려 전해짐 : 덕업상권, 환난상휼 - 15-6세기 향촌 양반 거향의식
* 33세 때 중국사신
* 병조판서 때 무과 시험에서 이순신 발탁
* 이지함 오랜 친구 : 아버지 병구완 비유, 더 나빠지지 않을 것
* 청빈 검소 - 처가가 사준 집, 장례 지낼 비용조차 없음
* 죽기 이틀 전 국경지방 떠나는 제자 서익 - 아우 우에게 여섯 조항 방책 받아쓰도록

2. 이상과 현실의 조화 철학

* 理字難知 대 理氣之妙 難見亦難說

理氣之妙 難見亦難說 夫理之源一而已矣 氣之源亦一而已矣……氣不離理 理不離氣 夫如是 則 理氣一也

* 이상은 추상적, 현실은 구체적 - 그러나 다른 문제 아님
* 이통기국(理通氣局) : 둥근 그릇 모난 그릇 - 속에 담긴 물은 같음
  큰 병이나 작은 병 - 그 속에 담긴 공기는 같음
* 이황 : 혼란한 현실에서 이상 가려내서 지켜감으로써 현실과 타협하지 않음
  이이 : 현실 떠난 이상 인정하지 않음
* 이상은 항상 변하는 구체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함
*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으면 현실 고치면 됨 - 이이의 현실 개혁 철학

3. 자연의 필연성과 인간의 실천

[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]

* 自然而然者 天道也 有爲而然者 人道也
* 모든 변화는 음양의 순환이며 음양 또한 하나의 기일뿐
  於陰陽變易之中 有太極之理
  本體之中 流行具焉 流行之中 本體存焉
* 그런 입장에서 화담 기자이(機自爾)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
* 자연의 필연 변화 - 인간도 생리적 감각적 욕구의 필연,
* 인간의 의지적 실천
* 이러한 힘은 인간 의지에서 나옴 - 의지 일으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인 힘

[인간에 대한 이해 - 교기질론]

* 우계(牛溪) 성혼(成渾)과의 논쟁 - 이이가 병으로 벼슬 물러나 율곡리 머물던 37세 때
* 4단7정과 인심(人心)도심(道心) 논쟁.
* 『서경』'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'
* 성혼 : 도심은 4단, 인심은 7정
* 율곡: 4단7정은 본성과 감정의 문제 - 그러나 인심·도심은 거기에 의지가 관련됨
* 기대승의 입장 취함 - 4단은 7정 속에 포함
* 4단은 도심만 해당, 7정은 인심과 도심을 합쳐 말한 것
* 마음은 하나이므로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라 시각과 끝의 문제임
* 理無爲而氣有爲 故氣發而理乘 : 기대승의 주장을 분명하게 체계화한 것
* 도심 - 도심, 인심 - 인심, 도심 - 인심, 인심 - 도심의 네 경우
  今人之心 直出於性命之正 而或不能順而遂之 間之以私意則 是始以道心 而終以人心

或出於 形氣 而不咈乎正理則 固不違於道心矣 或咈乎正理 而知非制伏 不從其欲則 是始以人心 而終以道心也

* 사람은 도심 - 인심이기 쉬움. : 자연의 필연법칙
* 그러나 의지적 노력에 바탕을 둔 실천을 통해 극복 가능 : 矯氣質論

[사회에 대한 이해 – 경장론]

* 사람이 만든 사회의 필연 법칙 : 창업 (創業) - 수성 (守成) - 쇠퇴 (衰退)
  時勢不一 各有攸有 撮其大要則 創業守成與夫更張三者而已
* 사회 주체인 인간의 능동적 실천으로 경장(更張) 가능.
* 당시 조선 상황 : 10년 안에 반드시 화가 닥칠 것
* 한창 발전할 때 경장 논하면 몸에 아무 병 없는데 약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
  사회 쇠퇴 시작할 때 개혁 거부하면 병든 사람이 약 먹기 싫어 죽기만 기다리는 것
* 바꾸어야 할 것 : 법률과 제도
  바꾸지 말아야 할 것 : 훌륭하고 어진 정치해야 하는 원칙과 삼강오륜 같은 도덕 법칙
* 경장의 기준 : 때에 따라 알맞게 바꾸는 시의(時宜)
* 기준은 공론(公論) - '사람들이 모두 마음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이 공론이며 국시(國是)
* 공론은 여론 아님 - 정당성 문제
* 임금이나 높은 벼슬아치가 만드는 것 아니라 백성과의 합의에 의해 도출되는 것
* 공론이 조정에 있으면 나라가 잘 됨, 마을에 있으면 혼란, 조정 마을 모두 없으면 망함
* 공론은 나라를 있게 하는 원기(元氣) -
* 공론의 구체적인 담당자는 사림(士林) - 사림도 국가의 원기

4. 백성을 위한 사회개혁

* 『성학집요』: '임금이 있으려면 먼저 나라, 나라가 있으려면 먼저 백성. 임금은 백성을 하늘처럼 여겨야, 백성이 하늘로 여기는 것은 먹을 양식. 백성이 그들의 하늘, 즉 먹을 것 잃으면 나라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됨
* 윤리도덕은 고기반찬임 - 위장 튼튼해야 소화 가능
* 실학으로 : 이이의 글에 실(實)자 많음. - 空, 虛, 假, 華
* 『동호문답(東湖問答)』에 「논무실위수기지요(論務實爲修己之要)」
* 거경(居敬)과 궁리(窮理)에 역행(力行) 강조 - '무실역행'
* 제자 중봉(重峰) 조헌(趙憲) : 동환봉사(東還封事)
* 반계 유형원 - 이이 언급 26번, 조헌 15번
* 성호 이익 '조선 이래 무엇을 힘써야 할지 제대로 안 사람은 이이와 유형원 뿐'

* 많은 개혁론 제시
* 종량론(從良論)

* 기호학파 : 사계(沙溪) 김장생(金長生) - 신독재(愼獨齋) 김집(金集) - 우암(尤庵) 송시열(宋時烈)
* 조선조 예학(禮學)
* 인물성동이논쟁(人物性同異論爭)과 북벌론
* 의병운동 : 화서(華西) 이항로(李恒老) - 의암 유인석, 면암 최익현, 중암 유중교